

타원의 형태를 보였다. 키틴이나 키토산 입자는 카테타 통과시 각 1예(10%)에서 입자가 서로 뭉치거나 가라앉아서 카테타 막힘이 있었고, 키토산 비드(150~250 μ m, 250~355 μ m)는 전혀 카테타의 막힘이 없었으며, 355~500 μ m의 키토산 비드는 1예(10%)에서 카테타가 막혀, 입자보다는 비드 통과가 용이하였다. 전체 60마리 중에서 59마리에서 성공적으로 색전하였다. 또 마취로 인한 사망이 1예, 반대측 신동맥으로 역류로 인한 사망이 7마리 있었다. 기존의 색전물질인 PVA 입자와 비교하여 특이한 혈액학적, 생화학적 비정상 소견은 없다. 색전물질들은 16주까지 흡수되지 않았다. 혈관은 색전물질로 막혔고, 급성염증변화와 기질화 그리고 다시 혈관 내에 재개통과 같은 소견을 보였다. 신실질은 응고괴사를 보이고 석회화와 섬유화를 만들며 수축되었다. PVA와 비교할 때 1~5군 색전물질에서 응고 괴사가 늦게 나타났고, 비드형태들은 염증반응이 늦게 나타나며 다른 PVA와 키틴/키토산 입자보다 심한 괴사성 혈관염을 보였다. 비드 크기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다.

결 론 : 키틴/키토산 색전물질들은 신혈관을 막아 응고괴사를 유발하여 색전 효과를 얻었고, 기존의 PVA 입자와 비교하여 혈액 및 생화학 검사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변화를 보여 색전물질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비드 형태는 균일한 구형으로 색전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8) 좌전하행지 개구부 협착병변에서 stent시술의 단기 및 장기 결과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심장내과

정강수*, 고재윤 김호정, 장순덕, 송생길, 박성욱, 박승정

목 적: 좌전하행지 개구부 협착병변은 관동맥확장성형술 과 관련된 합병증과 높은 재협착율로 해결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좌전하행지 개구부에 혈관내경이 50%이상 좁아져 있는120명의 연속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stent시술 후 장기 및 단기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33례의 환자에서는 죽상반절제술 후 stent시술을 하였으며, 나머지87례에서는 stent시술만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정기적으로 임상경과를 관찰하였으며, 6개월 후에 추적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결 과 : Stent시술의 성공율은 97.5%이었으며, 시술 후 4명의 환자에서 비Q파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 1명의 환자에서는 시술직후 심한 관동맥박리가 발생하여 응급우회로술을 시행하였다. 72명의 환자에서 추적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follow-up rate 75.8%), 관동맥조영상 재협착율은 27.8% (debulking group vs non debulking group : 26.3 % vs 28.3%, p=NS), 목표혈관 혈관재개율은 12.5% 이었다. Stent시술 후 재협착의 예측인자로는 시술직후 혈관내경이 유일한 예측인자이었다. 추적 관찰기간은 평균 23개월이었으며, 관찰기간 중에 4명이 사망하였으며(심인사 : 3, 비심인사 : 1),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은 없었다. 추적기간 중 event-free survival rate는 81.9 3.6% 이었다.

결 론: 좌전하행지 개구부 병변에서의 stent시술은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되나, 향후 관동맥우회로술과의 전향적인 무작위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